

기재부 예산총괄심의회 오리~수원 현장 방문

- 경제적인 철도건설 재검증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 설명 -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총괄심의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지난 7일 공단에서 추진중인 오리~수원 및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2012년 말 개통예정인 영덕·방죽정거장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총4기를 추가 설치(약12억)

현안과 방죽정거장 구간의 기존 출입구 4개소 리모델링(케노피 및 내부마감 등) 현안(약12억)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방문규 심의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또한,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교통 소외지역인 오이도~송도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바로 송도~인천을 연결하여 지하철 4호선과 경인선을 연결하며, 뒤이어 수원과 지하철 4호선(한대앞)을 연결하여 수도권 서남부 교통축을 완성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98년도에 계획된 화물수송계획을 작년 10월에 수요 재검증을 통하여 부분선 및 유치선 등을 조정하여 과잉설계부분을 절감(약247억원)하는 실적을 이루었다.

한편 전희광 남부건설처장은 이날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방 심의회장은 "철도공단의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 노력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조영규 기자)



수인선 오이도~송도구간 6월말 우선개통

- 수원~인천 전구간은 '15년말 완전 개통 예정 -

공단은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중 오이도~송도간(13.1km)을 완공하고 오는 6월 30일 우선 개통 한다고 밝혔다.

수인선 오이도~송도 복선전철 구간은 사업비 4,960억원을 투입, '04년 12월에 착공하여 7년 6개월 만에 개통하며, 개통행사는 지역주민들과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오는 6월 29일 송도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오이도~송도구간 8개역이 개통되면 원인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송도간 버스이용 시(시흥시 790번과 인천시 65-1 환승) 70분 소요되던 시간이 22분으로 48분 단축되어 하루 약 18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흥시와 인천 남동·연수구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인선 잔여구간인 송도~인천 구간(7.2km)은 '14년 말에, 수원~한대앞 구간(19.9km)은 '15년 말에 개통 예정으로, 1937년부터 1995년까지 단선 협궤(762mm)열차로 운행되던 수인선 전구간은 17

년 만에 표준궤간(1,435mm)의 복선전철로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전동차를 투입하여 운행을 재개하게 된다.



철도산업정보센터 지하철9호선 관련 정보서비스개시

- 공단, 서울9호선운영(주)와 정보연계협약 체결 -

공단은 서울9호선운영(주)대표이사 마셀린 다루)와 상호 정보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9호선(개화~신논현 간) 운영 정보를 지난 21일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를 통해 제공에 들어갔다.

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 등 14개 철도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철도기술자료 4만건, 철도 정보콘텐츠 16만건, 철도통계자료 289종을 인터넷 포털사이트(www.kric.or.kr)와 모바일(m.kric.or.kr)을 이용해 6만여 철도유관기관 회원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와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이번 서울9호선운영(주)와 정보연계 협약으로 열차운행정보, 시설물정보, 통계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증가는 물론 철도산업정보센터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혁신본부 백유경 기자)

'강원통'을 위한 재향협회 도서기증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외된 계층과 소통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250여권의 책을 수집하여 (사)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에 전달하였다.

본부는 '강원통'을 2012년 목표로 삼아 내부직원, 건설현장 등과 소통을 위해 사이버 해우소를 개설하여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본부 전철호 기자)

게시판

주요뉴스 (5. 15 ~ 5. 23)

- 지경부·국토부 산하기관 동반성장 '낙제점' (한겨레 5. 15)
- 국토부, 12개 철도운영기관 일제 점검(한국일보 5. 15)
- 아시아~유럽 물류혁신 박차... '남북평화'도 실어나른다(한겨레 5. 15)
- "중단-횡단 철도연결은 남북로 모두에 이익"(한겨레 5. 15)
- 오이도~송도 복선전철 새달 말 개통(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국민일보, 파이낸셜 5. 16)
- "태백선 복선전철 조기 착공해달라"(강원일보 5. 16)
- 국가 철도망 건설에 타당성이 절대 기준인가(강원일보 5. 16)
- 수인선 8개 신설역명 확정(경기일보 5. 16)
- 솔안터널 최첨단 방재시스템 도입(강원도민일보 5. 17)
- 대관령 구간, 6월중 착공(조선일보 5. 17)
- "KTX, 나주역 경유해야"(광주일보 5. 17)
- 동서고속화철 해법 놓고 '충돌'(강원도민일보 5. 17)
- 서울~부산 90분 차세대 고속철 '해무'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전남일보 5. 18)
- "남북철길 다시 열어 미래로 나가야" (한겨레 5. 18)
- 원주~강릉 복선전철 이달말 첫 싣 (강원일보 5. 19)
- [도청도설] 해무-430X (국재신문 5. 19)
- '독점구조' 불평한 진실도 논의(경향신문 5. 21)
- 입사 수험생 탄 KTX 고장...100여 명 발 동행(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5. 21)
- 29세대에 발목 잡힌 효창역(중앙일보 5. 21)
- 원주~강릉 전철 개통 이후, 지금부터 대비를(강원일보 5. 21)
- 고속도로 전광판서 KTX 민영화 홍보(인천일보 5. 21)
-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역서 31일 착공(서울신문, 한겨레 5. 22)
- 철도시설공단-교통대 업무협약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5. 22)
- 한반도 세계 중심 이끌 한일해저터널 (국재신문 5. 22)
- 동대구역 고가교 새단장 한다 (조선일보 5. 22)
- 안동서 태백기던 화물열차 탈선 (대구일보, 경북일보 5. 22)
- [단독] 靑, 임기내 KTX 경쟁체제 도입 사실상 포기 (머니투데이 5. 23)
- 한국 철도기술 세계에 전파한다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5. 23)
- 중종단 고속철시대 열린다. 베이징~스자창 연내개통 (동아일보 5. 23)

'신안선 송산차량기지 건설공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건설본부(본부장 김명국)는 '신안산선 송산차량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 자문회의를 지난 18일 10개분야 내·외부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송산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신안산선과 인접선구인 서해선, 대곡~소사~원시선에 운행하는 차량의 경수선 및 유치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8년 준공목표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공사 입찰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를 거쳐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건축설비처장은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철도의 각 분야가 참여하는 복합공종의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송산차량기지 건설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건설본부는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한 60건의 자문요건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경제적이고 고품격의 차량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본부 강대열 기자)

철도 113년 역사 한 눈에

- 공단, 여수엑스포역 내 철도홍보관 운영 -



여수엑스포역에 철도홍보관이 설치돼 우리나라 113년 철도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단은 철도를 이용하여 여수엑스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여수엑스포역 맞이방과 화장실을 확장(1,170㎡)하고, 맞이방 일부 공간에 철도홍보관을 설치하여 지난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철도홍보관은 우리나라 113년 철도의 역사와 202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하고, 차세대고속열차(HEMU-430X), 틸팅열차 등 최신 열차 4종의 모형을 전시하여, 열차를 이용하여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여수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철도가 미래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설본부 임중섭 기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정기안전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지난 21일 본부 3층 강당에서 현장 안전총괄 책임자 및 공단 직감독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시행한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행사는 공단 6대 경영목표중 하나인 "무재해 안전시공" 달성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안전결의문 낭독, 특별 안전교육, 재난 및 사고 시 처리절차 설명 등을 통해 안전책임자로서의 안전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본부는 올해 들어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관리와 품질확보에 노력한 「왕십리~선릉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건설공사」의 3개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안전공로 표창장을 수여 격려하였으며, 타 현장도 모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본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정기안전교육」을 시행, '무재해 안전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임병일 기자)



경조사

- 영남본부 건설처 김인수부장 병무상 - 발인 : 2012년 5월 18일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재철처장 장남훈 - 일시 : 2012년 6월 2일(토) 11시30분
- 경영지원안전실 품질안전경영처 최승선처장 병무상 - 장 소 : 서울로양호텔 그랜드볼룸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권수길차장 차녀훈 - 일시 : 2012. 6.2(토) 오후 4시
- 발인 : 2012년 5월 21일 - 장 소 : 서울 필라체아트홀(당산) 2층 아트홀